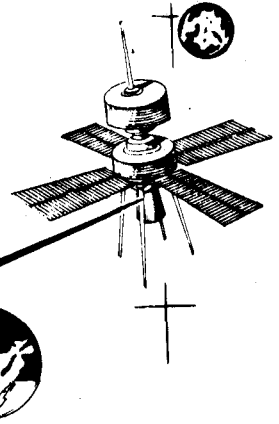


양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축산기업의 양계산물 홍보

「천연난각으로 위생포장된 달걀이 당신에게 건강을 선물합니다」 제하의 양계산물소비캠페인 광고가 지난 6월14일 일간신문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금년들어 계속 불황속에서 허덕이던 채란업자들에게는 긴 가뭄 끝에 단비였고 전국 소비자들에게는 완전영양식품-달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신문광고는 국내 굴지의 M사료회사에서 1차로 1천5백여만원을 들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게재한 것으로 계속해서 2차로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한다.

본회도 지난 86년부터 소비홍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중점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바 생산자인 양계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료·약품·기계·기구 등 관련산업 모두의 연대의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에서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양계

업계 외에도 튀김감자, 야채, 식용유, 케찹 등 관련산업의 협조는 실로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농기계, 식품, 비료, 사료, 약품 등 농업에 연관된 기업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사제품(원자재)만을 팔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산업풍토에서 벗어나 이제는 2차 생산품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축산업계에서도 계란값, 닭값이 폭락을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계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전부였고 시간이 지나 가격회복이 될때면 생산자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엔 계란소비캠페인 광고는 생산자가 극심한 불황으로 생산기반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뜻 거금을 들여 실시한 것이다. 양계인들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확고한 양계업 생산기반의 확보를 위해서는 양계산물 소비홍보가 필연적 과제이며 이는 양계인만의 과제에서 유관기업의 연대의식속에 함께 추진해야 문제로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홍보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축산학도를 위한 장학사업 등에도 축산기업이 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할때이다.

물론 양계인은 양계업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을 보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가(高價) 사료 시대

6월중 예년에 비해 앞서온 무더위와 함께 국제곡물가격 시세가 연일 상승가로 치솟고 있다.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는 곡물매입을 위해 곡물중개상간에 연일 싸움질이다.

미옥수수 주산지(콘벨트)가 지난해보다 평균기온이 10~16도나 높은 열파와 극심한 한발로 줄기와 잎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한다. 옥수수가격의 경우 1월초 C&F 톤당 \$100대이던 것이(1월 4일 \$104.53) 2월중 \$100~115로 5월까지지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6월 13일 \$128.94로 뛰는 것을 시작으로 연일 치솟고 있다. 6월 24일 현재\$172로 올라있다(년초대비 165%)

관계전문가는 11월 선적분의 경우 \$160대를 호가하고 있다하며 앞으로 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150대 이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전한다. 고가 곡물시

비밀사료 양계 산품 소비 캠페인

주식회사 미원
사/표/사/업/본/부

YOSHIZAKI
* 내지의 축산발전 내의사명 나의보람

자녀에게 건강성장의 바램과 정성을 함께 주고 싶은 지혜로운 엄마.

우리 엄마는 아침식사를 달걀로 준비합니다.

달걀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완전한 영양이며 천연난각으로 포장된 위생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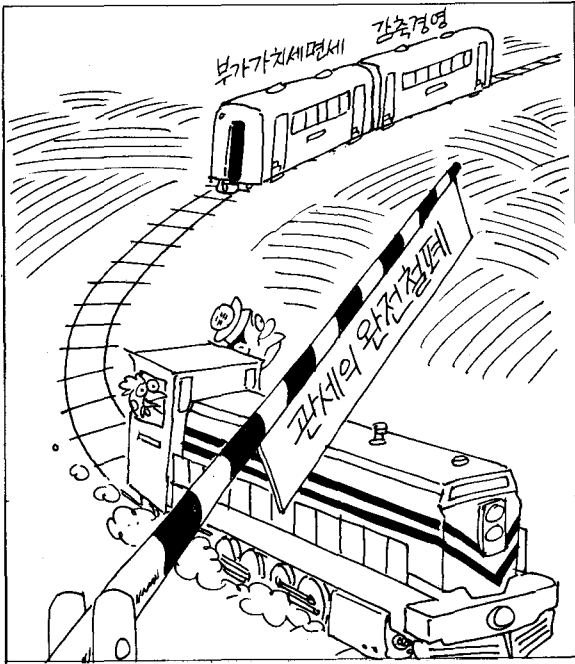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의 근원물질인 인지질과 마네말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한창 자라는 어린이에게는 비만을 막아주는 좋은 구상비의 단백질과 지방을 깨끗하고 용기있게 가꾸어 주는 레시틴이 들어있어 지혜로운 엄마는 아침식사를 달걀로 준비합니다.

정성스런 우리엄마..... 한알 한알 알찬 영양. 달걀로 우리 가족은 건강합니다.

이 광고를 보신 분들께는 추소를 위해 보내 주시길 달갑게 여겨 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57-1, 2층(충남)
전화번호 752-2571-2, 3층(충남)
100-025 서울 신대문로5가224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주)미원이 일간지 및 주간지에 5단통으로 광고한 양계산물 소비캠페인 광고



대가 도래한 것이다.

6월말 현재 쓰고있는 사료에 사용되는 옥수수가격이 \$110대인 것으로 미루어 옥수수가격만을 감안할때 30% 이상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의 요인이 발생되었다.

문제는 옥수수 가격 뿐만 아니라 대두·소맥 등 다른 곡물가격도 동반상승을 하고 있는 데다 지역적으로 중공·태국시장 가격도 만만치 않다는데 그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식용유업계의 판매부진으로 대두박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대두수급이 불안한 상태이다. 이는 미국의 그동안 저곡가시대 재고누중에 의한 강력한 감산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이웃 일본·대만 등 사료곡물수입국들도 축산위기가 도래했다고 아우성들인데 대만은 옥수수안정기금제도로 일본은 배합사료 판매안정기금제도 등 완충장치에 의한 피해는 우리보다 덜한 것 같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의식을 느꼈던 지난 74년과 80년에 약간의 기상이변에 의한 흉작으로 우리 축산업계는 심한 몸살을 한 바 있었다.

다행히 한국사료협회는 작년까지 1개월 앞두고 구매하던 제도에서 신속한 정보에 의해 6개월 앞당겨 물량을 잡아 타업체보다는 5~6개월의 이익을 보게되었다. 옥수수가공협회나 제분협회 등에 비하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각종 구매제한 여건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쿼터제 철폐 등 원료구매에 제한을 주는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관련업계에서 곡물메이저들의 매점매석에 신속히 대처하며 곡물동반상승에 아직도 가격차이가 있는 사료용 대맥(보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료공업차원에서는 앞으로 판매전략에 못지않게 구매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진 만큼 보다 싸게 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전략모색이 요구된다.

금년도 원화상승이 국제 곡물시세를 약20% 정도 상승시켜 축산업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겠으나 앞으로는 원화절상 폭보다 곡물가 상승폭이 커 염려가 된다.

7월 1일 부터 사료곡물 관세가 인하된다 하나 배합사료가격의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1% 남짓이고 보면 관세의 완전철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등으로 양축농가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양축가 스스로는 적정수수의 생산으로(필요하면 감축경영)이 어려움을 슬기있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닭고기·계란값을 도입곡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값에 맞추어 인상하는 길밖에 없다.

ND백신 사용이 줄고 있다.

뉴켓슬병(ND)이 문제가 되고있다. 일선 임상수의사들에 의하면 채란계농장 보다 육계농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한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양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불황이 닥치면 질병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예방용 백신사용량이 준다. 최근 양계업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일부 육계농가에서 배짱 좋게 ND백신을 하지 않고 닭을 키우고 있다.

관계기관 집계에 의하면 ND백신의 금년도 사용실적이 1~5월중 작년의 36%가 준 5천9백9만우분 정도가 소비되었다 한다. 작년도 같은기간 소비량 8천26만수의 64% 정도가 소비된 것이다.

양축가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요사이 질병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한다. 회의에서는 없는 질병이 개개농장주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발생보고가 없어 양축가 홍보를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는 가운데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ILT(전염성후두기관염)의 경우도 금년도 백신소비가 작년도 같은기간 보다 19%가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질병방역이 치료에서 점차 예방의학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예방을 백신접종을 하지않아도 질병에 문제가 없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양계산업을 진정으로 아끼는 뜨거운 熱情의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안테나를 집필하시던 노영한국장(현 양돈협회전무)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아쉬운 筆을 놓으셨습니다

이어서 실로 경력이 반에도 못미치는 본인이 감히 양계 안테나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78년 6월 첫회를 집필하시어 만10년 1개월(121회)에 걸쳐 양계인들의 가려운 곳을 속속 긁어주시던 노국장님께 흑여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편협된 사고와 졸렬한 판단이 실수를 남발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면서도 양계인들에게 내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면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집합니다.

본지 편집위원들의 뜨거운 격려로 pen을 놀리지만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계인들의 더 많은 체적질과 격려를 당부합니다.(斗) 양계

마니나브라운산란계의 경제성 선언

**87년형 마니나 브라운 산란계는
산란수에서 7.3개, 평균난중이
0.6그램 개선 되었습니다.**



마니나 브라운의 산란능력은 최근 5 - 6년 간 급속도로 빠르게 개량되어 이제 세계의 어느 갈색계와도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니나 브라운의 능력변화비교

경제형질항목	'87년형	'85년형
	마니나브라운	마니나브라운
78주령 산란수 (개)	302.4	295.1
평균난중 (그램)	63.3	62.7
수당 1일 사료섭취량	117	119.7



마니나